

농지 취득·소유·이용상황 상시 관리한다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전국 농지의 취득, 소유, 이용 상황에 대한 상시 조사관리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8일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현판식'을 가졌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 상시조사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농지업무 관련 교육 컨설팅 지원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의 기능과 역할을 맡게 된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기존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를 상시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들에게 보다 유용한 농지지원과 정보를 제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news.co.kr

[다른기사 보기](#)